

한국YWCA 2004-4

여성이 정치를 하면 정치가 맑아집니까?

글 박영숙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 공동위원장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공동선의 성취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정치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인구의 반인 여성의 삶의 조건을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남성의원들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국민민복을 위한 정치, 그리고 평등한 사회는 여성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정 치권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제17대 국회구성을 위한 4·15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범여성계의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322개의 여성단체들이 결속하여 정치관련법과 제도 개혁에 주력한 '총선여성연대'의 활동과, 비례직 50%와 선출직 30%의 할당제 실시에 대비하여 102명의 여성후보를 발굴하여 각 정당에 공개 추천한 바 있는 80여 명의 여성지도자로 구성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활약이 그 예가 된다. 그리고 이들 두 기구와 한국여성재단이 공동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후보자 당선운동과 유권자운동에 필요한 기금마련을 위해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를 발족하여 현재 '2004 맑은정치 희망지기' 모

집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2004 맑은정치 희망지기'란 오늘의 위험수위에 도달한 부정부패정치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풍토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이루어내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주체를 의미한다.

"여성이 정치를 하면 정치가 맑아집니까?"라는 질문에 운동본부의 공동위원장인 강지원 변호사는 "물론 맑아집니다. 여성이 소수일 때는 남성문화에 편입되기 쉽지만 여성이 동등수준이 되면 달라집니다. 남성이 여성과 함께 있으면 주먹질 하나라도 줄어들테고 부패도 줄어들겁니다."라고 답한다.

최근 세계은행의 발표를 보면 여성들의 의회 진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적고 국민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현재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 스웨덴(45.3%), 덴마크(38.0%), 핀란드(37.5%)의 경우 반부패지수가 높았고, 국민소득도 3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홍, 한국여성개발연구원).

또 하나의 질문은 '여성의원들이 제대로의 의정활동을 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제16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평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부부라 해도 여전히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이혼한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의 명의로 각각 1채씩 집을 갖고 있다면 이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며 어느 한 쪽이든 집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여성들의 약진이 아름답다

여성들의 약진이 2004년 봄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한나라당의 대표 경선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박근혜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 중심부 진입에 성공했다. 박영선(열린우리당)·전여옥(한나라당)·이승희(민주당)씨는 여성 대변인 시대를 이끌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 1번으로 각각 여성장애인 장향숙 씨와 여성 노동자 심상정 씨를 최종 확정했다.

남성 중심의 법조계에서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강금실 법무장관도 주목받는 여성 지도자다. 30세도 안된 하버드대 최연소 박사인 윤송이 씨가 SK텔레콤 상무에 오른 것도 막강 여성과 위를 반증한다. 국내화재진압대원 여성 1호인 박양지 씨(30), 한국최초 철도청 여성기관사 강은옥씨(36), 여성전투기 조종사 편보라(26)·박지영(26)·장세진(25)씨, 공인국제축구심판 임은주씨(39), 서울법대 양현아 교수(44), 이영애 춘천지법장 등은 그동안 남성의 세계로 인식되던 분야에 처음 진출한 여성이다.

한국 여성파워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분야는 스포츠계다. 박세리 박지은으로 대표되는 여자골퍼들은 이미 세계 톱클래스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스포츠 분야에서도 우먼 파워가 두각을 나타내지 오래다.

아직 여성의 사회진출과 성공에 무수한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여성들의 약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의 유정미 연구원(31)은 "여성이 점차 조직의 핵심으로 진출하는 것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자기 몫을 해내는 '의식적인 측면'이 강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불평등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여성운동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양한 삶의 모습들

제6회 서울여성영화제가 4월 2일부터 9일까지 서울 신촌아트레온극장(1, 2관)과 녹색극장(3관), 마포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여성의 시각에서 삶을 다양하게 바라본 작품 73편이 상영되는 이번 영화제는 지난해보다 전체 상영편수는 약간 줄었지만 장편영화가 늘어 전체 상영시간은 늘어났다.

세계 여성영화의 흐름을 이끄는 감독특별전의 올해 주인공은 독일 뉴 저먼 시네마의 대표 감독인 마가레테 폰 트로타. 프로타는 난해하지 않은 영화 언어로 '역사와 여성'이라는 주제를 탐구해온 페미니스트이다. 올해 신설된 '영 페미니스트 포럼'은 관객을 영화 안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함께 대화하고자 패널리스트를 중심으로 '여성주의(하위)문화'와 '성장 및 정체성' 등 상영작들이 제기하는 이슈들을 담론의 공간으로 옮겨와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다큐멘터리 부문도 풍성하다. 케냐의 다양한 부족과 할례의 전통,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결혼과 변화를 탐구해 2003년 홍콩영화제 최우수다큐멘터리 인권상, 유러피안영화제 최고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화제작 '잊지 못할 그날', 한국전쟁 때 빨치산으로 활동한 경력 때문에 감옥에서 10년을 산 실존인물 박순자 씨의 삶을 다룬 '잊혀진 여전사' 등이 상영된다. 문의 [전화번호] [이메일]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베스트10 중의 6명(여성의원 16명)이 여성의원이다. 또한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26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서 뽑은 최상위급 30명 중 5명이 여성이다.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5.6%인데 우수한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받은 여성의원 비율은 17%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상임위원회별로 볼 때 여성의원이 최고 성적을 거둔 위원회가 16개 중 2개로 12.5%로 나타나 여성의원들이 많이 늘어나면 정치가 한층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여성이 조직과 돈 등의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성의원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하겠다(*이연숙, 제16대 국회의원).

삶의 조건 향상시킬 생활정치, 여성의 손으로

제17대 국회를 위한 4·15 총선에서는 여성계가 기대하는 대로 각 정당이 공약한 바 있는 비례직 50%와 선출직 30%의 이행으로 아시아의 평균치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56명의 비례직에서 50%(열린우리당 60% 공언)인 28명 이상은 확보된 것이다. 비록 부패정치의 척결이라는 국민의 여망으로 유권자들의 여성후보들

에 대한 투표성향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는 하나 여기에는 여성단체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여성후보라고 무조건 지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공개 추천한 후보인 경우 여성들은 그들의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지자체 선거때부터 시행되고 있는 '1인 2표제'의 투표법에 따라 후보자와 정당지지를 별개로 할 수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다.

제17대 국회에서 힘겨루기 정치를 걷어내고 우리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생활정치를 이끌어낼 여성의원들을 다수 보내야 한다. 4·15 총선 투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 우리 모두는 각 지역에서 투표권 바로 행사하기와 여성후보자 당선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각자 혼자하기 힘들면 '2004 맑은정치 희망지기'가 되는 것이다. 희망지기가 되는 방법은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의 홈페이지(www.cleanfund.org)를 방문하여 '맑은정치를 향한 희망지기 선언문'에 동의서명하고 소정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된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공동선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정치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인구의 반인 여성의 삶의 조건을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남성의원들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국민민복을 위한 정치, 그리고 평등한 사회는 여성들 스스로가 참여해 만들어내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수십만의 YWCA 회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성인지적인 유권자운동과 여성후보당선운동을 전개한다면 이 세대가 요구하고 있는 정치권의 물갈이와 판갈이는 분명히 성취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맑은정치여성기금계좌: (재)한국여성재단

더불어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



'건강한 세상'은 생명에 대한 보살핌의 윤리가 살아 있는 세상을 일컫는다. 나와 가족, 이웃 등 사회 전반이 골고루 건강하고, 또 그 건강함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바로 건강한 세상의 필수요건이다. YWCA가 2004년 주력사업으로 생명사랑 공동체운동을 채택한 것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는 건강한 세상에 대한 간절한 바람 때문이다.

이에 편집부는 'YWCA 생명사랑 공동체운동'을 연간기획으로 구성하여 한국YWCA가 2004년도 주력사업으로 펼치는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을 이해하고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 10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며 이번 호는 그 세 번째 순서로 공동체운동을 생태환경 측면에서 바라보고 YWCA 생명사랑 공동체운동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